
[취재요청서] 기자회견 '이길준 이경에 대한 불법적인 감금을 중단하라'

2008년 8월 5일 오후 6:53

전의경제도 폐지를 위한 연대 (120-012)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475-51 301호

문서번호 : 08-0805-1

발 신 : 전의경제도 폐지를 위한 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제 목 : 이길준 이경에 대한 불법적인 감금을 중단하라

1. 안녕하십니까.
2.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 이길준 이경은 지난 7월 27일 저녁 7시에 신월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촛불집회에서의 진압에 대해서 양심선언을 하면서 더 이상 의경복무를 하지 않겠다며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이길준 이경은 촛불집회 진압을 잘했다고 2박3일 특박을 나온 상황이었고 7월 25일 저녁 8시까지 귀대를 해야 했었습니다.
4. 농성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지지와 관심을 보내주셨습니다. 날마다 찾아오셔서 과일을 사다주시는 인터넷 요리카페 회원들, 아이들 손을 잡고 경기도 곳곳에서 찾아와주신 시민들, 이길준의 신변을 걱정하여 밤새도록 농성장을 지켜준 수많은 촛불시민들. 하지만 예상외로 경찰의 대응은 빨라서 7월 30일 고발장이 접수되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농성이 예상보다 짧아서 아쉬움이 남았지만, 법을 어겼을 지언정 떳떳하고 당당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재판이나 수감생활에서 도망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농성을 해산하고 7월 31일 자진출두를 하였습니다.

5. 검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8월 2일 불구속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길준씨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중랑경찰서 방법순찰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복무의 의사가 없는 사람의 신변을 억류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의 불법감금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또한 이길준을 부대에 억류하는 것은 이길준 개인의 신변에 커다란 위협일 뿐만 아니라 다른 부대원들에게도 커다란 부담을 지우는 것입니다.

6. 한 편 검찰은 8월 5일 이길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였습니다. 기존의 부대미복귀와 명예훼손 외에도 명령불복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억지로 부대로 끌고 간 후에 쫓불시위 진압명령을 내려졌고 이길준씨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의경복무자체를 거부한 마당에 부당한 명령을 재차 내리고 그것에 대해서 죄를 묻는 것은 명백한 이중처벌이며, 정당한 법적인 판단보다는 징계를 주고 죄를 만들기 위한 꼼수일 뿐입니다.

7. 전의경제도 폐지를 위한 연대는 현재 이길준씨에 대한 불법감금을 심각한 인권침해로 생각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또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합니다. 자신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사람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랑경찰서 방법순찰대에는 이길준씨에 대한 불법적인 감금을 하루 빨리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9. 위 사안을 가지고 8월 6일 10시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 이길준 이경에 대한 불법적인 감금을 중단하라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신청 및 사무총장 면담

일시 : 2008년 8월 6일 10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순서>

- 임종인(전의경제도 폐지를 위한 연대 공동대표, 전 국회의원)

- 이덕우(진보신당 공동대표, 변호사)

문의 : 이용석(전의경제도 폐지를 위한 연대

최정민(평화인권연대)

여옥(전쟁없는세상)